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 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Case Study of Yunhaju Settlement for Korye Saram Migrated
from Middle Asian Countries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재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Post Doc.
연구원 이영심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이정규
석사과정 이선희

Dept. of Home Economics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Cho, Jae-Soon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Post. Doc Researcher: Lee, Young-Shim

Dept. of Home Economics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octorial Course: Lee, Jung-Gyu
Master's Course: Lee, Seo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ush and pull factors of migrants from middle Asian countries to Yunhaju, Russia, and housing situations in settlements as well as housing intentions to behave. Four female Korye Saram in Cremobo settlement and Woojung village and 10 male and female elderly in ordinary residences were interviewed during April 22-25, 2003. Changes in national formal language from Russian to folk languages was played the most prominent push role, while availability of settlement and agricultural land and emotional attachment as the second hometown pulled them to migrate into Yunhaju. The housing situation in Cremobo settlement was very poor and almost settlers had already left. The rest settlers wanted to move into Woojung village. The resident in Woojung village hoped to get the formal contract to rent the dwelling and agricultural land. Family adaptations were progressed to solve the housing deficits among settlers both of Cremobo settlement and Woojung village. This research explored a part of the 140 years residential history of Korye Saram.

▲ 주요어(Key words): 연해주(Yunhaju), 재소 한인(Korye Saram), 크레모보 정착촌(Cremobo settlement), 우정마을(Woojung village), 추출·유입요인(push and pull factors)

I. 서론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약 4만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 R01-2002-000-00252-0)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주저자: 조재순(Email: jscho@knue.ac.kr)

들 대부분은 소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연해주로의 이주자 거의 전부는 자신이나 부모, 조부모가 이전에 연해주에 거주하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인들이 연해주로 처음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한반도와 연해주의 지리적 근접성과 아울러 한반도의 정치, 경제 상황과 연관이 깊다. 연해주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접해 있으며, 그 북쪽으로 흑룡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해 있다.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맺은 북경조약에 의해 연해주 일대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러시아 황제령으로 이주민 우대 정책을 실시하자 한반도에서 연해주로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상해·이진현, 2003; 이영심·조재순, 2003).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문서 기록은 1863년 겨울 한인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포시에트 근처에 정착한 것으로 시작되나 실제 한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그 이전부터 있어 온 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기 이전까지 연해주로 이주해 온 한인들의 이주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광규, 1998: 43). 초기 이주는 흉년과 기근, 지방관리의 폭정, 농민반란 등으로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 이주한 농민이주가 대부분이며, 1905년 이후에는 일제를 피해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이주한 망명이주가 주를 이룬다.

연해주의 초기 한인 이주자들은 연해주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대우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강만길, 1999; 페트로프, 2000, 2001). 일본에 외교권을 이양한 1905년 이후 이주한 망명이주자들은 의병활동뿐 아니라 러시아 혁명에도 동참한다. 혁명이 끝나고 나서 1923년 개인재산 몰수와 집단농장화 운동과 토호청산이라는 시련이 닥치고 마침내 연해주 한인들은 1937년 일제와 내통하여 첩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적성민족으로 분류되어 연해주거주 한인 거의 전부인 약 18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후 1953년 스탈린기가 지나 후르시초프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서 주거이전 자유가 보장되어 소연방 각지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김떼밀, 1995). 소연방이 해체하고 재러시아 한인 명예 회복에 관한 법이 통과된 1990년대 초부터 60여년간 중앙아시아에서 뿌리내린 한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하고 그 일부가 연해주로 재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장치혁, 1995). 1998년 연해주 정부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한인들이 거주하도록 러시아군대가 철수한 시설을 고려인재생기금에게 제공하면서(이광규, 1998: 8) 정착촌 거주자 시작되었다.

연해주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인에 관한 연구는 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가 정착촌 실태를 파악한 것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9) 인류민속학적 측면에서 정착촌 생활 전반을 개략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국립민속박물관, 2001; 이광규, 1998) 있을 뿐 정착촌 거주자의 주거생활 파악에 초점을 둔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한인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이 연해주로 이주한 동기를 추출요인과 유인요인으로 분석하고, 정착촌 거주자의 주거생활 실태와 주거조절 계획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이주를 통해 주거생활을 조절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연해주 거주 한인의 140여년 주거사의 일부를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자료수집은 연해주 정부가 제공한 6개 정착촌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온 한인 이주가족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끄레모보 정착촌에 거주하는 3가구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원하며 고려인재생기금이 갖고 있는 가운데 1차 입주가 완료된 우정마을 정착촌에 거주하는 1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여자 연장자(44세~68세)와 각각 1시간 정도씩 면담하면서 기록과 녹음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후에는 주거실내외를 관찰, 스케치, 실측, 사진촬영을 하여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 연해주로의 재이주 동기를 보완하기 위해 정착촌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남녀 한인노인 5명씩 두 집단 10명을 면접하였다. 2003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4일간 방문과 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통역자가 함께 있어 불분명한 부분의 설명을 보완했으나 대부분 한국어로 면담할 수 있었다.

<표 1> 정착촌 거주 면담대상자 특성

정착촌	성명	성별	연령	가족수	가족구성
끄레모보	박 다찌야나	여	58	5	아들내외 손자 2명
끄레모보	장 나시자	여	68	5	아들내외 손자 2명
끄레모보	이 라리사	여	62	4	딸 외손자손녀
우정마을	고 밀라	여	44	4	부부 딸 2명

III. 연구결과

1. 연해주로 재이주한 동기

면담자들이 정착촌에 들어온 것은 1999년과 2000년으로 정착촌에서 겨울을 3~4번 지낸 상태이다. 연해주로 재이주한 이들의 이주동기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험한 추출요인과 연해주 지역의 유인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를 떠나게 하는 유출요인은 소연방 해체 즉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 독립국가 재건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높아진 것과 함께 나라의 민족정신을 기르기 위한 이슬람교 부흥이 소수민족인 한인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한 점이 크다. 연방 계획경제체제가 독립국가단위의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생활의 어려움도 중요한 이주동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공식언어로 러시아어 대신 민족어나 자치구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로 말미암아 자신이 러시아 교육을 받았고 (손)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한인들이 (손)자녀가 러시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민족어나 자치구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문관직에서 쫓겨나고 좋은 농토를 분배받지 못하는 등 토착민족의 신분상승과 소수민족의 신분하락과 같은 불평등 문제가 실제로 발생함으로써 한국인을 포함하는 소수민족이 중앙아시아를 떠나게 되었다. 면담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추출요인 가운데 민족어 공식언어 문제를 이주의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었다.

연해주지역으로 재이주하게 한 유인요인은 연해주가 66세 이상 된 한인 대부분이 태어난 곳이며 젊은 재이주자 부모나 조부모의 고향이라는 정서적 연관성과 더불어 고국인 한반도에 가깝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유대계나 독일계, 터키계 소수민족들은 원하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한인들에겐 고국에 가까운 연해주가 실제적인 대안이 된 셈이었다. 1993년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전 영주지에 귀화한 재러시아 한인에게 집과 농사지를 땅을 지원하겠다는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의 통과가 이주를 고려하던 한인들이 연해주로 재이주하도록 촉진하였다.



<그림 1> 연해주 재이주자를 위해 건설중인 우정마을 전경

연해주 정부는 1998년 러시아 군대가 철수한 6개 시설을 현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해온 한인들의 정착촌으로 근처 농장과 함께 제공하였다. 이들 마을은 포포프카, 라즈돌노예, 플라토노보, 오레호보, 노부예즈네, 끄레모보로 모두 군인들이 사용하던

병영과 군인 가족 아파트로 시설이 낙후하고 파괴되었거나 없어진 부분이 있어 시설을 보수한 후 입주하였다(이광규, 2002: 218). 그러나 연해주로의 재이주가 계속 증가하리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 지역 주산업인 농업운영방식이 집단농장생산에서 개인농장생산으로 바뀌면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축산업도 중국의 값싼 육류와 우유가 수입으로 고사상태에 처하게 되어 최근에는 연해주로 새로 이주해오는 한인 이주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림 2> 군장교 아파트로 이용되던 끄레모보 정착촌 전경

2. 주거생활실태

농장생산으로 바뀌면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축산업도 중국의 값싼 육류와 우유가 수입으로 고사상태에 처하게 되어 최근에는 연해주로 새로 이주해오는 한인 이주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끄레모보 정착촌은 연해주의 수도인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으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으며 연해주의 제2도시인 우수리스크와 약 1시간 거리에 있어 다른 정착촌에 비해 도시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소연방시절에 이용하던 공군 막사와 군인가족 아파트가 섞여동 있는 곳으로 건물이 낡았으나 현재 러시아인도 거주하고 있다.

끄레모보 정착촌에는 한인 재이주가가 우리민족서로돕기 조사시(1999년 5월) 59가구, 한국민속박물관 조사시(2001년 8월) 56가구 살고 있었으나 이 연구를 위한 현지 답사시는 다 떠나고 6가구만이 장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정착촌의 낙후한 주거시설,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 도시와 떨어진 입지상 비농사철에 일거리 없다는 것과 같은 문제로 인해 입주자들이 정착촌을 떠난 것이다. 중앙 난방은 겨울철에 관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공급되어 실내에 냉한 습기와 냄새가 차 있었다. 상수도도 자주 고장이 나서 화장실과 욕실, 부엌 싱크대에 상수가 공급되지 않아 욕외 공동우물을 이용할 때가 자주 있다. 거주인수가 줄어들면서 주변학교사정도 나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이 안전하지 못해 남은 한인가족마저도 올 9월까지의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비워있는 건물이 여러 동 있어 떠야한다는 마음을 더욱 갖게 한다. 정착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전 조사 보고서(우리민족서로돕기, 1999; 이광규, 2002; 한국민속박물관, 2001)에서 정착촌 거주자들은 피난민 아닌 피난민이 되어 불가피하게 이주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런 정착촌 사정은 여전히 여전하다. 그러나 정착촌외 지역의 한인 가운데 일부는 이보다 더 극빈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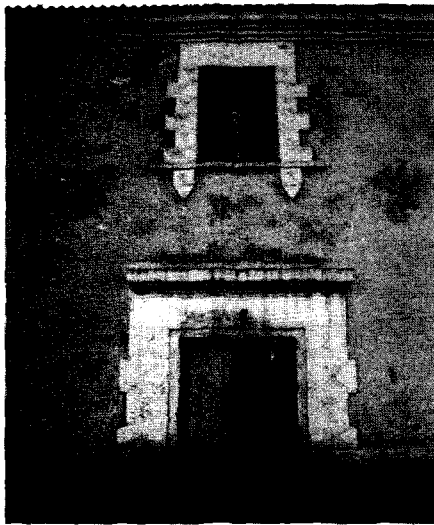
현재의 열악한 주거상황에 비해 이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살았던 이전 거주지는 부모들이 살기 좋게 마련해 놓아 집과 살림살이가 있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농사철인 5월~9월까지의 정착촌에서 5km 떨어진 농장의 다차(농막)에 거주하면서 콩, 토마토, 오이, 수박, 고추 등을 재배한다. 농토는 매우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으나 농기계 사용료와 비료값이 부담이 된다. 최근 3년간 가뭄과 홍수 피해로 농사피해가 커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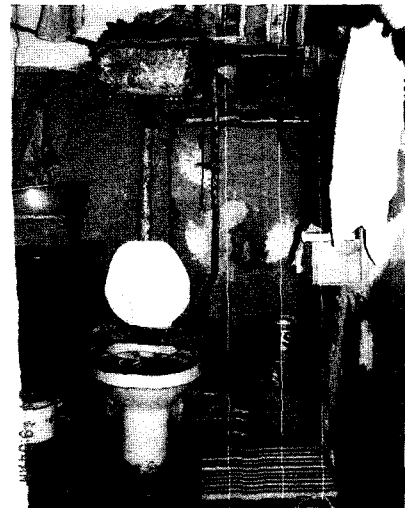
<그림 5> 끄레모보 정착촌 아파트의 거실 겸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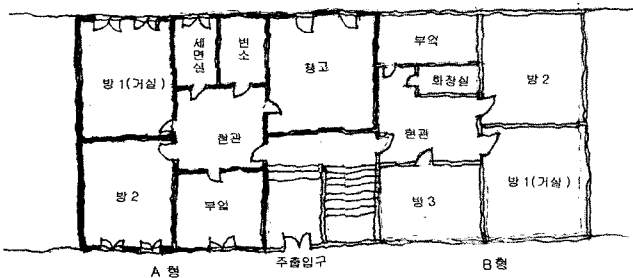
<그림 6> 끄레모보 정착촌 아파트 부엌



<그림 3> 끄레모보 정착촌 아파트 출입구



<그림 7> 끄레모보 정착촌 아파트 화장실



<그림 4> 공간구성이 다른 2채가 인접한 끄레모보 정착촌 아파트 평면



<그림 8> 지상에 도출된 프레모보정착촌의 지역난방공급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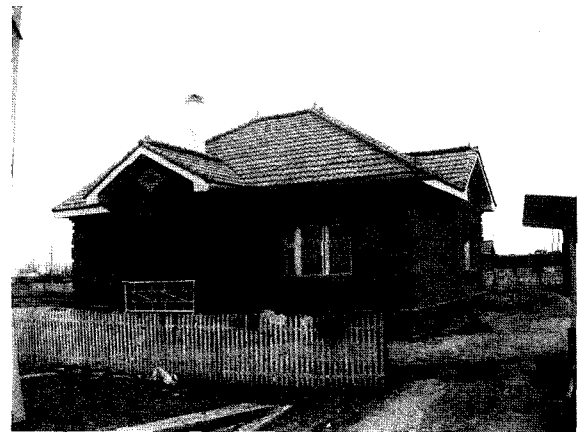
<그림 9> 프레모보 정착촌의 아파트 침실

우정마을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지원하고 고려인재생기금이 주관하는 장기 정착촌 건립 사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한인을 위해 새로 26~28평 단독주택이나 2호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연해주정부로부터 70년간 무상임대 받는 택지 64만평에 2008년까지 주택 1,000호와 유치원, 학교, 상점 등을 건립하고 농지 900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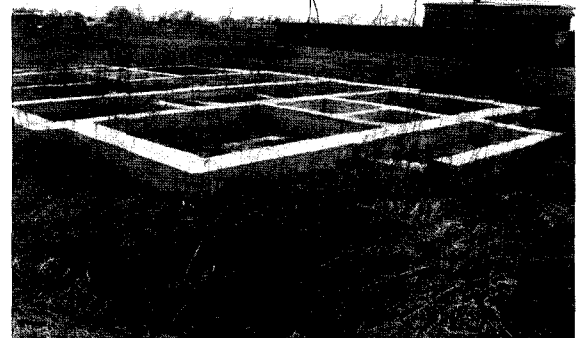
일차로 2000년 9월 31채를 완공하여 입주하였다. 현지조사 당시에는 31채 가운데 한인이주가가 25채, 러시아인이 3채에 거주하고 빈집이 3채 있었다. 면담대상자 고밀라씨는 1999년 카자흐스탄에서 농기계 기술자 9가구가 함께 고려인재생기금과 우정마을에 정착하기로 계약하고 이주해 왔으나 주택완공이 지연되어 2년간 난방이 안되는 다른 정착촌에 살다가 2001년에 이곳으로 이사해 와서 살고 있다.

단독주택인 이 집 공간구성은 가운데 현관이 있고 왼쪽에 부엌이 오른쪽에 거실이 있으며, 안쪽 좌우에 침실이 있고 두 침실 가운데 창고가 있다. 이 창고는 원래 화장실 겸 욕실공간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상하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부엌 패치카에서 온수를 덱혀 라지에타를 통해 집 전체를 난방하고 있다. 난방연료로는 나무와 석탄을 사용하며 취사연료는 전기와 가스이다. 부엌 지하에 식품저장창고가 있어

가운데 바닥뚜껑을 열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수대에는 수도꼭지는 있으나 개수대 위에 달린 물통에 물을 부어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개수대 아래에 놓인 통에 받아서 텃밭에 버린다. 한쪽 벽에 입식 식탁을 붙여 놓았다. 물은 마을의 공동우물을 이용하고 화장실은 텃밭가장자리에 앞집과 뒷집 것이 두 개씩 나란히 설치한 개인용 화장실을 이용한다. 실내에서는 바닥



<그림 10> 벽돌로 지은 우정마을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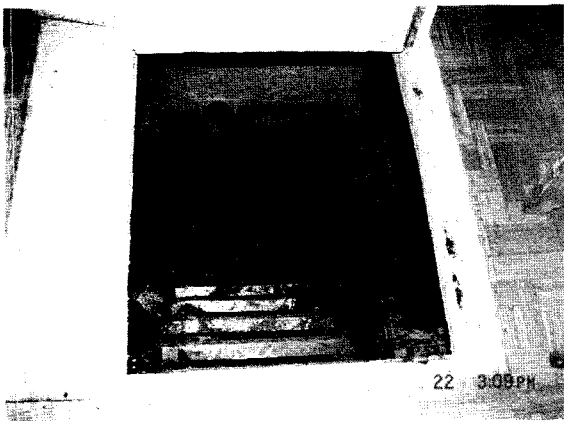
<그림 11> 건축중인 우정마을 2호 연립주택 기초



<그림 12> 우정마을 단독주택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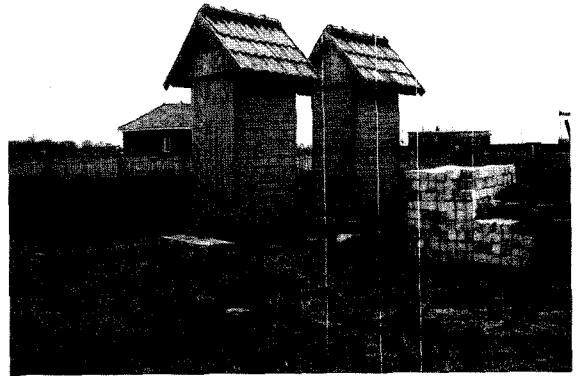
<그림 13> 난방용 온수배관이 연결된 우정마을 단독주택 부엌 패치카



<그림 14> 우정마을 단독주택 부엌 지하 식품 저장고



<그림 15> 상수공급이 안되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우정마을 단독주택 욕실



<그림 16> 뒤 텃밭 끝에 위치한 우정마을 단독주택 옥외 화장실

에 카펫을 깔고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모두 침대를 이용하고 있다. 주택 뒤편에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넓은 개인용 텃밭이 달려 있다. 최근 일간지에(한겨레) 우정마을 주민들이 600만평 농지를 받아 채소와 가축을 기르고 우유를 생산하여 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 바가 있다.

3. 주거조절계획

르레모보 정착촌은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이 곳 이주자들은 난방, 수도, 전기, 가스 시설들이 좀 더 잘 갖춰진 곳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게 되기 바란다. 르레모보 정착촌 거주자들은 모두 우정마을에 입주하길 원하고 있으나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인근 우수리스크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여 이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000~10,000달러 정도하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들부부가 집을 떠나 우수리스크 시장에서 장사 일을 하거나 한국에 돈 벌러 간 경우도 있다. 집을 두 채 마련한다면 자녀가족과 독립해서 살고 싶지만 우선은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이 급한 상황이다. 자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머니들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이 곳에서 손자녀들이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성적이 우수하면 학비를 들이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손자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손자녀를 위해 연해주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 막막하긴 하지만 자신의 부모들은 중앙아시아의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자신들을 잘 키워주었으므로 자신들도 지금 겪은 주거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정마을은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이 곳 이주자는 주거조절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다만 주거와 농장 사용권을 10년 계약하였으나 아직 법적으로 사용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빨리 사용권을 받아 이 곳에서 원하는 만큼 장기간 계속 살 수 있게 되길 원할 뿐이다. 우정마을 거주자도 대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러시아 학교에 다니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주에 따른 어려움의 위안과 보람을 느낀다. 비정

착촌 거주 한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정마을 입주자의 주거 생활도 안정되어 있어 보였다. 이는 연해주 정부가 무상 임대한 다른 정착촌 거주자들의 전 출입이 잦고 주거생활이 불안정 하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V. 결론

이주는 주거결핍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이동과 달리 한 노동시장이나 주거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 이동하는 주요 이유가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이주는 직장이동 또는 새 직장 탐색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나 주거이동과 마찬가지로 이주를 통해서도 주거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Maris & Winter 1966:168-169).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해 오는 한인들은 일반적인 이주와 관련된 추출요인과 유인요인 이외에도 이들만이 경험하는 극적인 몇 가지 이주 동기가 더 있다. 더구나 불법으로 이루어진 강제이주를 당한지 불과 60여년이 지나 다시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이주를 결행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해주 정부가 제공한 크레모보 정착촌에의 주거생활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는 처지이므로 우정마을과 같은 안정된 정착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거생활이 안정된다면 농사와 장사 등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생활 전반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연해주지역 재이주자의 이주경험은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를 통해 주거생활을 조정해 가는 과정은 주거사회학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국내외 여러 단체가 뜻을 모아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를 재이주하는 이들을 위해 새로 건립하는 우정마을은 이미 살고 있는 초기 입주자들부터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더 늘어날 새 입주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정착촌 주거생활의 적응과정을 계속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주거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연해주지역 재이주 한인들의 독특한 주거사의 일부를 소개하는데 불과하다.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재이주 한인들이 이주 전에 살던 국가, 직업, 강제이주 체험 등과 아울러 이주 후 정착촌 거주 경험 여부, 이주 친족 유무, 재정형편 등과 같은 여러 특성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1937년 강제 이주 이전의 연해주지역 한인 거주생활사와 함께 강제 이주 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주거 생활에 관한 추후 연구는 140여년의 연해주 지역 한인주거사의 맥락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만길(1999).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고려인 강제이주 그 통한의 길을 가다. 서울: 한길사.
 국립민속박물관(2001).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김메밀(1995).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7, 57-6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000). '99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실태조사 보고서.
 이광규(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이광규(2002). 연해주와 한민족 네트워크.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동북아평화연대 공동학술발표집.
 이상해·이진현(2003).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377-380.
 이엽심·조세순(2003).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56차 춘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185.
 이종훈(1995).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 *재외한인연구*, 7, 121-130.
 장치혁(1995).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과 한국. *한민족공영체*, 3, 75-105.
 제주일보. www.chejunews.co.kr/2002/08/2002_0804/special
 한겨레(2003). 연해주에 고려인 정착촌. 2003. 5. 20. 2면.
 A.И.Петров(2001),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1897-1917 гг.* ДВО РАН
 A.И.Петров(200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ДВО РАН
 Morris, E. W. & Winter, M.(1966). *Housing, Family and Society*(2nd revised). I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접수 일 : 2003년 3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3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14일